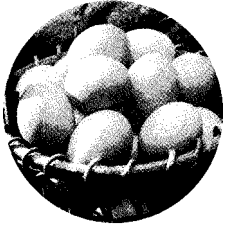


## \* 등급정보 (계란) \*



▷ 19개 업체에서 생산한 2천7백31만9천개에 대한 등급판정 결과, 1등급 91.9%, 1등급 6.2%, 2등급 0.6%, 3등급은 1.3%를 차지. 전월대비 5백71만개(17.3%) 감소, 전년동기(19개 업체)대비 4백45만3천개(19.5%) 증가, 근월누계는 2천7백31만9천개로 전년동기 누계 대비 4백45만3천개(19.5%) 증가

계란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 천개, %)

종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09년 ~1월	27,319	25,096	91.9	1,695	6.2	176	0.6	352	1.3
'08년 12월	33,029	29,820	90.3	2,287	6.9	234	0.7	688	2.1
'09년 1월	27,319	25,096	91.9	1,695	6.2	176	0.6	352	1.3
왕란	188	167	88.9	21	11.1	-	-	-	-
특란	19,395	18,372	94.7	1,024	5.3	-	-	-	-
대란	7,667	6,526	85.1	613	8.0	176	2.3	352	4.6
중란	68	31	44.9	38	55.1	-	-	-	-
소란	-	-	-	-	-	-	-	-	-

## \* 축산뉴스 (계란) \*

### ↑ 임신 중 계란섭취, 자녀 유방암 예방

임신 중 계란 등의 식품에 함유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딸은 나중에 성장해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보스턴대 크루시초프 블루스차인 교수(병리학)가 이끄는 연구팀에 따르면, 콜린과 관련된 유전자 변화가 유방암 발병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암컷 쥐를 대상으로 임신 중 콜린 함량이 다른 각종 식품을 먹게 한 후 새끼 쥐에게 유방암이 발병하게 하는 화학물질을 투여한 결과 모든 새끼 쥐에서 유방암이 발병했다. 하지만 임신 중 콜린 성분을 많이 섭취한 엄마에게서 태어난 쥐들이 유방암 세포 성장이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쥐가 임신 중 콜린을 전혀 섭취하지 않은 쥐의 새끼는 암세포가 더 빨리 성장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미국 실험생물학회 연맹 저널'(The Journal of the Federation of American Societies fExperimental Biology)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이미 성인이 되어서도 달걀 등에 함유된 콜린을 하루 평균 455mg 이상 섭취한 여성은 콜린을 196mg 이하 섭취한 여성보다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24%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 1인당 계란 소비 증가세, 1년에 223개 섭취

1980년 1인당 연간 소비량이 119개에 불과했던 계란은 1990년에는 167개로 증가했다. 지난 1월 30일 농림수산물식품부가 발표한 '2008 농림수산물주요통계'에 따르면 2000년에 들어서면서 연간 계란소비가 184개로 늘어났으며 2006년에는 223개로 급증했다. 1990년대 이전에는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계란 소비량이 추종하기도 했다. 그러나 콜린이라는 성분은 오히려 두뇌활동을 도와 기억력 향상은 물론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계란 소비가 다시 증가했다.